

개인의 지리적 세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ersonal Geographical World

백인기(한국의국어대학교, ikpaik@chollian.net)

우리의 현대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식사회에 있어서도 전통적 지식체계가 붕괴되고 서구적인 지식체계를 도입하면서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정보기술의 발달은 개인과 세계, 개인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지리학의 학문적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지리학적 논리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리학적 인식의 결여는 단순히 지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넓게는 우리 사회 전체 학문이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개인의 지리적 세계라는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의 지리적 세계는 각 개인에게 고유한 지리적 경험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개인-세계의 관계가 이미 주어진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규정적인 쌍방향 관계이며, 개인이 인식하는 세계는 발견되고 경험되는 세계이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지리적 지식을 축적하며 삶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개인을 통해 지리학적 논리와 학문적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리적 지식 혹은 지리학적 지식 또한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한 지리적 지식의 유용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지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개인에게 지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야 할 그 무엇이며, 호기심과 경이의 대상이며, 자신의 지식과 삶이 실현되는 곳이다. 각각의 개인들이 각자의 지리적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개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판단들이 사회적인 논쟁을 양산하는 현실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